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Stress and Experience of Doing Harm: Moderating Effect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오미옥, 이진향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Mi-Ok Oh(omo@koje.ac.kr), Jin-Hyang Lee(so30835@koje.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0,424명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설명력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은 차별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권의식은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차별가해경험 | 스트레스 | 인권의식 | 아동청소년 |

Abstrac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ess on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To do this, we analyzed the data obtained from Surve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15. The subject is 10,424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3th grade of high school.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able, we hav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nfirmed changes in explanatory power. As a result of that, first, it suggests that stress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have direct effects on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This results show that the lower stress and the higher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the lower experience of doing harm is. Second,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moder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the stress and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has propo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it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 keyword : | Experience of Doing Harm | Stress | Human Rights Consciousness | Children and Adolescents |

1. 서론

현대 시민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평등을 당연한 것처럼 교육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연령, 인종, 장애,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는 다르거나 자신보다 열등한 특성에 대해 차별, 무시, 혐오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차별(差別)’이란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대상에 특정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를 말한다[1].

UN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원칙(제2조), 청소년기본법(제5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은 아동청소년이 성별, 인종, 나이, 학력, 종교,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 왔다. 또한 인권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아동청소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당위적 사실이다[2].

아동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편견에 대한 신념 등 가치와 신념체계를 확립하게 된다[3]. 일부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기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편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행하기도 한다[4].

2016년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통계에 의하면, 차별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1년에 1-2회 이상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 경험은 초등학생 17.3%, 중고생 22.7%였고, 연령으로는 초등학생 12.9%, 중고생 22.9% 그리고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해 차별한 경험은 초등학생 13.8%, 중고생 24.3%로 나타났다[5].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차별적 가해경험은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비록 차별행위가 학교폭력의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모욕이나 조롱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언어적, 심리적 가해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2]. 청소년 차별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차별한 집단은 친구나 선후배 등이었다. 차별의 형

태로는 외모나 학업성적은 놀림이나 조롱의 형태로 그리고 장애는 집단따돌림과 놀림 등의 형태로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은 또래집단 내에서 폭력 등 차별을 행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6]. 또한 주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청소년이 8.5%인 반면, 83.7%(2014년 70.6%)의 청소년이 가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보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2.3%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66.9%였다[8].

선행연구들도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차별 등 문제행동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강성희[9]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명희[10]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교사에게 더 반항적이고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 빈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다[11][12]. 특히, 한미현과 유안진[13]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학업 및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가해경험이나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차별적 가해행동은 인권 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14-16].

인권 의식이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17],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의무의 성격도 가진다. 만약 청소년이 성별, 경제 수준,

성적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인권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인권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14]. 또한 인권의식은 인권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및 갈등 상황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의지이다[18].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은 미래에 책임 있는 개인의 가치와 행위유형을 기르는데 필요한 자질이며,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때 자신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19].

선행연구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존중받은 경험 정도가 타인의 인권에 대한 의무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이는 타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는지에 따라 타인을 차별한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16]. 또한 이효인[20]은 인권의식의 한 구성요소인 인권감수성이 높은 학생은 비록 학교환경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타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선택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학교스트레스가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효인의 연구는 인권의식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차별가해경험이나 학교폭력 또는 문제행동, 차별피해경험, 청소년들의 학업 및 일반 스트레스,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역할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5년 5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10,4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무응답과 결측치 등을 제외한 10,42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여자가 44.2%, 남자가 55.8%였고, 초등학교 재학이 28.9%, 중학교 32.7%, 고등학교 재학이 38.4%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매우 못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5.4%, 못하는 수준 19.4%, 중간 43.0%, 잘하는 수준 23.8%, 그리고 매우 잘하는 수준은 8.4%였다. 대상자의 가정형편은 매우 못 산다(1점)로 응답한 학생이 0.3%였고, 보통수준(4점) 35.8%, 매우 잘 산다(7점)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424)

변수		N	%
성별	여자	4,605	44.2
	남자	5,819	55.8
학력	초등학교	3,016	28.9
	중학교	3,405	32.7
	고등학교	4,003	38.4
학업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566	5.4
	못하는 수준	2,018	19.4
	중간	4,481	43.0
	잘하는 수준	2,487	23.8
	매우 잘하는 수준	872	8.4
경제수준	① 매우 못산다	36	0.3
	②	229	2.2
	③	1,042	10.0
	④ 보통수준	3,733	35.8
	⑤	3,046	29.3
	⑥	1,585	15.2
	⑦ 매우 잘산다	753	7.2
스트레스	M(sd)=11,965(3,512), 최소: 2, 최대: 24		
인권의식	M(sd)=20,734(4,185) 최소: 5, 최대: 28		
차별가해행동	M(sd)=11,599(3,229) 최소: 8, 최대: 50		

2. 연구도구

2.1 차별가해경험

차별가해경험은 ‘또래 내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위와 태도’를 의미한다[21]. 이의 측정을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중 하나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고안한 차별가해경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지역이나 고향, 외모, 종교, 거주가족의 형태, 장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한 번도 없음(1)’에서부터 ‘1주일에 3회 이상(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28이었다.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의 총합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가해 경험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2.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6문항으로,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학업문제(학업부담이나 성적), 가정불화, 또래관계, 경제적 어려움, 외모,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는 6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747이었다.

2.3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다양한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7문항의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의미가 반대인 1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768이었다.

2.4 통제변수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정형편(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구성되어 있고, 학년은 ‘초등학교 재학(4학년 이상)=1’, ‘중학교 재학=2’, ‘고등학교 재학=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적은 2015년 1학기 기준으로 반에서의 대략의 위치를 질문하였고 ‘매우 못하는 수준=1’에서부터 ‘매우 잘 하는 수준=5’의 5점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로 ‘매우 못 산다=1’점에서부터 7점 ‘매우 잘 산다’까지의 점수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버전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변수들의 기초분석을 위해 빈도와 평균(표준편차)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22]. 마지막으로 검증된 각 항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인권의식을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는 1.4%의 설명력을 보였고($p < .001$),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을 추가한 2단계의 설명력은 5.5%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의 설명력은 5.6%였다($p < .001$). 상호작용항의 β

1) 결정계수(R^2)는 변수들이 가진 총 변량 중 추정된 회귀식으로 설명

값은 $-.04(p<.001)$ 로 아동·청소년들의 차별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와 2단계의 R^2 변화량은 $.041(p<.001)$ 그리고 2단계와 3단계의 R^2 변화량은 $.001(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스트레스($\beta=.21, p<.001$)와 인권의식($\beta=-.10, p<.001$)은 주효과로 독립적으로 차별가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 모델에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분석결과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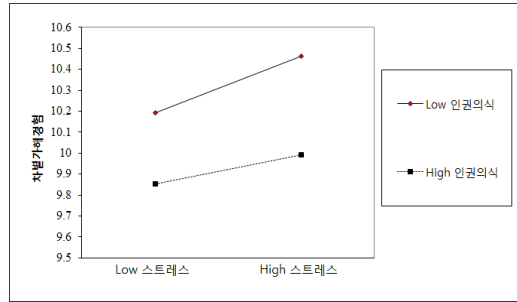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상호작용

표 2.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상수)	12.24		11.26		11.33	
성별	.40	.06***	.50	.08***	.48	.07***
학년	.14	.03***	.12	.03*	.11	.03*
학업 성적	-.18	-.06***	-.11	-.03***	-.10	-.03***
경제 수준	-.12	-.04***	.03	.01	.02	.01
스트레스(A)			.20	.21***	.20	.21***
인권의식(B)			-.07	-.09***	-.07	-.10***
A*B					-.01	-.04***
R^2	.014		.055		.056	
ΔR^2	-		.041***		.001***	
F	36.04***		100.24***		88.36***	

검증된 각 항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단순기울기 그래프 제시에서 가장 많이 권장되는 평균값과 $\pm 1SD$ 의 조건 값에서 얻어진 차별가해경험 점수로 나타내었다[24][그림 1].

가능한 변량을 의미하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R^2 의 값이 1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R^2 값만으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R^2 은 단지 독립변수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하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F검정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영향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은 차별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남학생들이, 학년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차별가해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인권의식,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추가 투입된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들 중 경제수준만이 차별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 경제수준이 차별가해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 학업성적, 학년(연령)이 차별가해행위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연구들[25-2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차별 및 학대경험과 차별가해행위의 관계를 살펴본 차유정과 황의갑[26]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차별가해행위를 더 많이 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한다. 성별과 학년이 차별가해행위나 폭력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8], 연령이 증가할수록 폭력행위가 줄어든다는 연구[29], 혹은 학년과 차별가해행위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30][31] 등이 있다. 이처럼 인구학적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은 대상자의 선정과 측정하고

자 하는 종속변수인 차별가해경험에 대한 정의가 각각의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집단 표집의 정확성을 높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단일집단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은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차별가해 경험도 높아지는 반면, 인권의식이 높아질수록 차별가해경험은 적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학교 및 일상 등 생활전반에 걸친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들[6][11][32]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Natving 외 [11]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길임과 심희옥[32]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부모관련 요인, 학업요인, 교사관련 요인, 친구요인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또래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판단능력에 영향을 주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행할 가능성을 높게 될 것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이들 개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가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대인 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3].

한편,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이 적다는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태도를 연구한 유성렬[34]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인권의식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인권실현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낮아진다는 김충희[35]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단, 김충희의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이

대상자인 본 연구에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권존중정도가 차별한 경험에 부적 영향을 갖는다고 보고한 천정웅의 연구[16] 또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데,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느냐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여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회귀모형에서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이 차별가해경험에 대해 5-6%정도의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와 관련변수들을 추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36].

셋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차별가해경험이 상당히 조절되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업, 부모 및 가족, 친구, 외모 등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차별가해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권의식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차별가해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각 발달 시기에 맞는 적합한 인권교육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인권교육은 이론적 수업 뿐 아니라 인권침해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재확인하고[37]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권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인권옹호 행동을 연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 함께 학교 외부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을 체험하고 인권옹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8]. 이러한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평가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긍정적 기회

를 제공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38].

또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의식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태도로, 직접적인 인권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아동·청소년들 중 차별가해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이 차별가해행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 둔감해진 채 차별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4].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의 생활을 해 나가는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때, 이들 역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권존중 분위기는 아동·청소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 부모, 사회복지사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시적인 캠페인보다는 아동, 청소년, 부모, 학교 및 관련자가 함께 체험 및 봉사활동,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함양하고[4], 차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차별가해경험, 스트레스, 인권의식 등 변수 설정이나 문항의 구성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권의식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등 하위요인(요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모형으로 설정된 변수들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모형에 반영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개념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변수들 간의 시간적 우선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33].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스트레스,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의 관계 및 조절효과에 경로 파악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장기적인 효과를 알기 위해 종단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권의식이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문제제시되고 있는 차별가해 행위에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차별가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과 인권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실천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 등 변수들을 좀 더 구체적인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세분화된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상에 맞는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050ma731a2>
- [2] 김희진,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9권, 제3호, pp.187-209, 2017.
- [3] J. R. Cross and K. L. Fletcher, “Associations of parental and peer characteristics with adolescen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0, No.6, pp.694-706, 2011.
- [4]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청소년 차별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6.

- [5] 김영지, 유설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6] 구본용, *청소년집단의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 [7] 정미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1호, pp.271-290, 2012.
- [8] <http://www.daehannews.kr/news/article.html?no=453011>
- [9] 강성희,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용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10] 오명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적 사건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1] G. Natving, G. Albrektsen, and U. Qvarnstrom,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s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0, No.5, pp.561-575, 2001.
- [12] M. Taki, “Relation among bullying, stress and stressor: a follow 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an and australia,” *Japanese Society*, Vol.5, pp.118-132, 2001.
- [13] 한미현, 유안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73-188, 1995.
- [14] 박봉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인식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5] 이샛별, *중학생의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인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6] 천정웅, “청소년 인권인식에 관한 구조분석: 인권 존중정도, 인권교육, 차별한 경험, 자존감의 영향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4호, pp.1-23, 2015.
- [17] T. E. Jennings, “Self in connection as a component of human rights advocacy and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23, No.3, pp.285-295, 1994.
- [18] 김자영, “청소년의 인권인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제1호, pp.5-40, 2012.
- [19] 배화옥, 심창학, 김미옥, 양영자, *인권과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2015.
- [20] 이효인, *학교스트레스가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인권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1] 정규형,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55호, pp.31-55, 2016.
- [22] 권수영, 이현주, 이준영,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pp.317-337, 2015.
- [23] <http://blog.acronym.co.kr/513>
- [24] J. Cohen,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Mahwa, NJ: Erlbaum, 2003.
- [25] S. Kim, P. Orpinas, R. Kamphaus, and S. H. Kelder, “A multiple risk factors model of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ts from urba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26, No.3, pp.215-230, 2011.
- [26] 차유정, 황의갑,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3호, pp.135-154, 2017.
- [27] J. F. Richard, B. H. Schneider and P. Mallet, “Revisiting the whole-school approach to bullying: really looking at the whole school,”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33, No.3,

pp.263-284, 2011.

- [28] 이지현,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인권의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29] 최운자, 김아영, “집단따돌림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제7권, 제1호, pp.149-166, 2003.
- [30] 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1호, pp.111-135, 2015.
- [31] C. J. Schmidt, J. Pierce, and S. A. Staddard, “The mediating effect of future expect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context and adolescent bullying perpetr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44, No.2, pp.232-248, 2016.
- [32] 김길임, 심희옥,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비교,” *아동학회지*, 제23권, 제5호, pp.139-151, 2002.
- [33] 염동문, 임채영, 정현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pp.401-423, 2015.
- [34] 유성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III 데이터 분석보고서I: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35] 김충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편견,”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2권, pp.357-373, 2004.
- [36] 홍선우, 김지수, 한혜진,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260-269, 2011.
- [37] 김상미, 남진열, “후기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4호, pp.173-193, 2014.
- [38] 김영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인권의식: 우울과 자기인권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267-280, 2016.

저 자 소 개

오 미 옥(Mi-Ok Oh)

정회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4년 2월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관심분야> :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빈곤정책,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정책

이 진 향(Jin-Hyang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
- 2005년 2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8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